

SKT 소셜 분석 서비스 '스마트 인사이트' 2018 러시아월드컵 기대심리

네티즌 최고 관심사는 '한국 VS 독일'

개막 D-30 기점
월드컵 언급 급증
해외스타 활약 기대 커
메시·호날두 등 언급

〈국내 관심 매치〉			
조	빅매치	빈도	
	대한민국 VS 독일	3795	
F조	대한민국 VS 멕시코	2621	
	대한민국 VS 스웨덴	2504	

〈그래픽=SKT 제공〉

국내 네티즌들은 14일에 개막한 2018 러시아 월드컵과 관련, 조별리그 F조의 한국 대 독일의 경기결과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은 14일 자사의 소셜 분석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인사이트'를 통해 월드컵 기대심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인터넷 뉴스, 블로그, 게시판, SNS로부터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 6만16583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속한 F조 국가들의 경기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독일이 맞붙는 조별리그 경기에 관한 소셜 버즈량은 3795건이며, 멕시코전은 2621건, 스웨덴전은 2504건 언급됐다.
특히 한국-독일전에 대한 관심은 스페인-포르투갈(980건), 브라질-스위스(717건), 프랑스-덴마크(697건) 등 우승후보로

거론되는 국가들의 조별리그 경기와 비교해도 약 3~5배 가까이 높다.
◇월드컵 개막 D-30부터 관련 소셜 버즈량 5배 급증
올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의 여파로, 월드컵에 대한 소셜 버즈량은 지난 4월까지 월 평균 7000건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국가대표 최종명단 발표 및 운두라스,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을 거치면서 5월 한 달 동안

안 발생한 월드컵 관련 소셜 버즈량만 3만 7000건을 돌파하는 등 축제 열기가 달아오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축구 마니아들이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축구 마니아층이 즐겨 찾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월드컵 관련 토론이 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스타 활약 기대감 증만...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언급 높아

해외 축구리그 슈퍼스타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다.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세리에A 등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기대한다는 언급은 전체 월드컵 관련 담화의 26%를 차지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관련 언급이 15%, 월드컵의 축제 분위기에 대한 언급이 13%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축구스타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단연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다. 두 선수를 필두로 브라질의 네이마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가 대중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월드컵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는 SK텔레콤의 독자적인 텍스트분석 엔진을 바탕으로 자연어처리 기반의 개체명 추출, 연관 키워드 분석, 감성어 분석 등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사용됐다. '스마트 인사이트'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여론을 비교/분석해 ▲고객이 많이 읽은 온라인 기사의 확산도 ▲상품의 대표키워드 ▲여론의 긍정/부정 척도 ▲상품 호감도 ▲온라인 여론 주도자의 반응 ▲경쟁사와의 상품 경쟁력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뉴시스



김연경·양효진·김효진 등 빠진 한국 여자배구, 미국에 0:3 셋아웃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4연패를 당했다.
차혜원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세계랭킹 10위)은 14일(한국 시간) 아르헨티나 산타페에서 열린 VNL 5주차 2차전에서 미국(2위)에 0-3(13-25 23-25 19-25)으로 졌다.
한국은 5승9패(승점 14)로 16개 국가 중 12위에 머물렀다. 미국은 12승2패(승점 37)로 선두를 유지했다.
5주차 예선에서는 김연경(터키 엑자사바시), 양효진(현대건설), 김수지(IBK기업은행) 등 주축 선수들이 빠졌다.
한국은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며 쉽게 1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는 박정아(한국도로공사)의 공격이 살아나며 미국과 접전을 벌였다. 이재영(흥국생명)과 김희진(IBK기업은행)이 좌우에서 힘을 보태고 서브 득점이 나오면서 22-22 동점을 이뤘다. 그러나 미국의 높이에 막혀 23-25로 2세트를 내줬다.
3세트에서는 이재영이 6득점하며 분전했지만 공수에서 열세를 드러내며 결국 셋아웃으로 경기를 내줬다.
한국은 이재영이 13득점으로 팀내 최고, 박정아가 9득점으로 뒤를 이었다. 결선 진출이 무산된 한국은 15일 세르비아(3위)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VNL 일정을 마친다. /뉴시스

월드컵 60년 만에 '경기당 3골' 가능하나 | 비디오 판독이 변수

축구의 꽃은 골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얼마나 많은 골들이 터질까. 최근 수십 년 동안 월드컵에서 경기당 골의 마지노선은 3골이다.
1958 스웨덴월드컵에서 평균 3.60골이 터진 이후 단 한 차례도 평균 3골을 넘은 적이 없다. 축구의 선진화, 조직화에 따라 수비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골의 수가 점차 줄었고 줄곧 2골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3의 벽'을 깬 조짐을 보였다.
공격 성향을 보인 팀들이 조별리그 첫 경기, 총 16경기에서 경기당 3.06골을 터뜨렸다. 이어 반환점이었던 32경기까지 평균 2.94골로 3골을 유박했다.
토너먼트에 들어가면서 뜨거웠던 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이전 대회와 비교하면 다른 모습이었다. 브라질월드컵의 평균 2.67골은 1998 프랑스월드컵의 2.67골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언론들은 결출한 공격수의 존재, 공격 성향의 전술, 공인구 등을 많은 골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인구의 발전을 눈여겨 볼만하다. 월드컵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공인구는 큰 관심을 받지만 골키퍼나 수비수로부터 혹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다 많은 골이 터지길 기대하며 공격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용되는 공인구 '텔스타(Telstar)18'에 대해서도 골키퍼들의 혹평이 많았다.
스페인 축구대표팀의 페페 레이나는 "거리 판단을 하기 어려운 공이다. 러시아월드컵에서 중거리 슈트만으로 최소 35골 이상 나올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반발력이 좋아 슈팅의 방향과 속도 등

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디다스가 개발한 '텔스타18'은 1970 멕시코월드컵에서 처음 선보인 '텔스타'를 되살린 것이다. 멕시코월드컵이 세계 최초로 위성 생방송된다는 의미를 담아 전 세계 사람들이 월드컵을 접할 수 있다고 해서 '텔레비전의 스타'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공교롭게 멕시코월드컵에서 평균 2.97골이 터졌다. 스웨덴월드컵 이후 가장 많은 골이 나온 대회다.
또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적용하는 비디오 판독시스템(VAR)이 변수다. 그동안 놓쳤던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반칙 등을 바로잡을 수 있다.
60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가능할까. 개최국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러시아월드컵이 막을 올렸다. /뉴시스



14일 개막한 2018 러시아월드컵 공인구인 '텔스타 18'.

제5회 한옥마을 품바왕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